

칼럼

곽 경 호 뉴시스 경제부장



가상화폐의 '악화·양화', 정부손에 달렸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투자(Investment)와 투기(speculation)는 국과국의 차이이다. 투자는 자본시장을 서클라이징하고, 투기는 자본시장을 병들게 한다. 투자 실패는 회복이 가능하나 투기 실패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외신에 비친 국내 가상화폐 시장도 이와 엇비슷하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비아냥 거릴 정도다. 거의 두 달 전부터 정부 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을 바로잡겠다며 엄포를 놨지만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이를 호재로 악용,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신규 유입자뿐만 급증하는 추세다. 개인의 투기로 방지하기에는 반 시장적 위험성이 예사롭지 않다.

가상화폐를 대표하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6일 부터 1비트 당 2500만원을 넘나들고 있다. 불과 1년 전과 비교하면 20~30배 이상 폭등했다.

가상화폐 광풍에 대한 경고가 높아지면서 가격 폭등의 실체도 드러나고 있다. 일부 큰손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장세를 좌지우지

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가격을 울렸다 내렸다를 떠 주무르듯 하고 있다. 사정당국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시장에 전문 투자세력이나 해외 투자자집단이 참여,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를 모르는 개인들은 연일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변동성이 주식의 수십배에 달하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개인들이 수익을 내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그러나 개인들의 시장 유입은 갈수록 늘고 있다. 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30만~40만명 정도가 여기에 빠져 있다. 실패한 개미가 시장을 빠져 나가면 다시 새로운 개미들이 채워지는 형국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관에서는 '하우스'만 실수를 차리기 마련이다. 경찰의 상승 도박판 수사에서 보면 돈을 탄 도박꾼은 없고 실제 돈을 탄 사람은 하우스(도박장)들이다. 하우스에서는 판이 풀 때마다 풍자를 뜯는다. 판이 돌고 돌다보면 결국에는 돈을 탄 사람은 없고 하우스만 돈을 따게 되는 것이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가상화폐로만

100억~300억원 씩 보유한 자산가들이 더러 있다. 하지만 이들도 "보유한 가상화폐는 계속 시장에 붙어두고 팔려야 한다"며 "가상화폐를 팔아 실제 만저본 현금은 얼마되지 않는다"고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백하기도 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투기 광풍속에 엄청난 실적을 차리고 있다. 국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하루 평균 35억원, 빗썸은 28억원씩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양사의 일평균 수수료수익을 단순 연환산 시에는 각각 1조2900억원, 9461억원에 달한다. 웬만한 증권 증권사의 연 매출과 맞먹거나 오히려 큰 수준이다. 양사의 일 거래액 규모는 더욱 놀랍다. 업비트 7조원, 빗썸이 2조5000억원이나 된다. 하루 7조5000억원의 거래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이 제도권 자본시장으로 순 유입된다면 어떨까.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상화폐 시장 존치의 당위성만을 부각시킨 주장이다. 4차 산업의 핵심으로 기대

받는 블록체인을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분산 원장'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각이다. 핀테크뿐 아니라 공공 부문, 토지 대장, 헬스케어, 제조업, 유통, 사물 인터넷 등 여러 분야에서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이는 곧 '가상화폐=블록체인'의 잘못된 등식을 깨는 중요한 요소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세법 개정 이전에도 과세할 수 있다는 뜻을 7일 밝혔다. 우선은 사업 소득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관련 법 부재로 현재 인터넷쇼핑몰처럼 통신관 매업으로 분류된다. 가상화폐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본 것이지만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 가상화폐 판매로 마진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매도 매수자 사이 증계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에게 대한 소득세와 거래세 부과도 곧 가시화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더 늦기전에 과세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시장 광풍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엿보인다. 거래소 폐쇄나 투기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현 제도상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럴 바엔 강력한 과세로 투기의 광풍을 무력화 시켜려는 의도는 상당한 설득력을 주고 있다. 투기가 잡히면 가상화폐도 자본시장의 제도권 편입도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가상화폐의 악화(惡貨) 양화(良貨)를 가릴 줄 아는 정부의 후속조치가 달려 있다. 실기(失機)하면 안된다.

社說

젊은이 결혼기피 심각하다

대학생 10명 중 6명 이상이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회원복음화협의회는 조사전문회사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4년제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 총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1.9%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안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2년 같은 응답이 43.8%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 18.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다'가 44.5%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는 답이 37.3%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는 답이 49.2%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은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다'가 50.9%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응답자 67%는 혼전 등

거에 찬성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2년과 비교해 30.9% 증가한 수치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알마든지 가능하다'는 응답이 30.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응답자 35.3%가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24.5%에 비해 10.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일을 하는 이유로 '생활비 마련'을 꼽는 응답자가 52.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여행·여가·문화비 마련'이 32.4%로 뒤를 이었고, '학비 마련'이 9.5%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버는 평균 수익은 월 60만 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年	海	年	年
矢	每	每	每
每	催	催	催
催	催	催	催

▷ 뜻: 화살같이 매양 재촉함.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고층건물 화재시 침착하고 안전하게 피난유도해야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의 68층 초고층 건물 어드레스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16명이라는 미미한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사고를 통해 다시, 고층건물 화재시 초기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고층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먼저 침착해야 한다. 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올바른 판단으로 큰 위험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화재 상황을 침착하게 판단하여 스스로 진화할 수 없을 만큼

큰 불이라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화재현장에서는 유독가스나 연기로 인한 사망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불보다는 연기가 더 무섭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대피를 하다보면 문으로 탈출 할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문손잡이가 뜨겁다면 문 너머에 불이 있다는 뜻이니 문을 열면 안된다.

또한 건물내의 승강기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단이 불에 막히거나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없다면 옥상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승강기는 전기로 작동되기 때문에 화재시 단전이 되면 빠져나올 수 없어 내부에 갇히거나 짐식할 염려가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된다.

민약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힘든 경우라도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거나 배관을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가는 행동도 삼가야 한다.

건축물의 3층에서 10층까지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다. 완강기 사용법을 익혀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평소 화재시 대피방법을 익혀

긴급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119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관계자들은 메뉴얼 등 행동요령들을 정확히 알고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훈련으로 인명피해의 최소화 하여야겠다.

건물관계자는 옥상으로 피난할 수 있는 출입구를 항상 개방하고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며, 건물의 벽이나 통로에 설치된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을 활용하여 초기진화에 노력한다.

또한 각 차량, 우리 집, 점포에 반드시 소화기와 경보기를 설치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 민원팀장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 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